

[공지] KLPGA 안소현 프로와 함께 하는 아나바다 선발자 및 아이디어

퍼스트 티 코리아 교육생들에게 자연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KLPGA 안소현 프로와 함께 마련한 이번 아나바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참여한 모든 교육생을 초청하고 싶지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게 이번 ‘안소현 프로의 골프특강’에는 아래 8명만 초청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선발된 8명은 오는 12/21(토) 오전 8시 50분까지 솔라고 GDR 골프아카데미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장은 반드시 골프하기 편한 복장과 운동화, 그리고 퍼스트 티 골프모자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골프레슨을 위해 개인용 골프클럽이 있을 경우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개인용 골프클럽이 없을 경우 당 재단에서 준비한 골프클럽을 사용하면 되므로 상기 복장만 갖추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는 아쉽게 선발되지 못했지만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다른 참여자분들께도 특별히 안소현 프로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모자와 골프공, 볼케이스를 택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재단에서 보내드린 문자에 정확한 집주소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발자 및 자원재활용 및 자연보호 아이디어 (가,나,다 순)

No	성명	아이디어
1	김*래(1472)	한국인의 커피사랑은 대단합니다. 서울의 지역별(예,구)로 대형 프렌차이즈외의 소규모 커피숍들이 연합으로 리유저블컵을 공동구매하여 사용하고 회수하고, 아낀 비용으로 세척을 맡기고 다시 쓴다면 자연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연(1508)	안녕하세요 저는 OO초등학교 2학년 김*연 입니다. 저는 제로플라스틱 차원에서 외출시 항상 물병을 소지합니다. 학교나 학원, 또는 운동을 갈 때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컵 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개인 물병을 항상 소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오빠와 동생이 있습니다. 오빠가 사용했던 물건을 물려받아 사용하고 저 또한 옷이나 장난감 여러가지 물건들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동생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지향하여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일회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자연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맹*영(0147)	안녕하세요^^ 너무 기대가 큰 아나바다 운동에 깊은 관심과 존경을 표하며 열심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유리병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실제 저희 집에서는 유리병을 화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와인병이나 소스병을 세척한 후 LED 조명을 넣어 독특한 무드등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또 버리는 플라스틱통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흙을 넣고 씨앗을 심거나 화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 좋아요^^
4	방*현(8113)	1. 플라스틱 재활용 1) 플라스틱 병을 화분, 펜꽂이, 장난감, 조명 등으로 활용 2. 종이 재활용 1) 신문지나 폐지로 선물 포장지나 완충재 제작 3. 음식물 쓰레기 활용 1)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가정용 퇴비로 사용 2) 과일 껍질 등 안전한 음식물로 애완동물 건조 간식 제작 4. 옷과 섬유 재활용 1) 낡은 옷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하거나 가방, 쿠션 커버 등으로 리폼 5. 유리 재활용 1) 유리병이나 조각을 활용해 테라리움, 촛대, 조명 장식 제작
5	성*우(8977)	학교에서는 학용품을 아껴 써서 낭비를 줄이고, 점심시간에 먹을 만큼만 음식을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반드시 끄고 TV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지 않도록 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골프를 칠 때는 플라스틱 말고 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 골프티를 사용하고, 음료수를 마실 때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어요.
6	신*호(773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OO초등학교 2학년 신*호입니다. 제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컵 대신 집에 있는 컵을 사용하거요! 종이컵을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컵을 계속 사용하면 종이를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을 잘해야 해요.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캔을 모두 따로따로 모아서 재활용 통에 버리면, 그 물건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이 재활용 하는 날이라, 엄마랑 같이 실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 대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전거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서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다섯 살부터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 지금도 엄마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실천들로 내가 사는 자연과 자원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오*혁(5526)	KPGA/KLPGA 대회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우승한 선수에게 물을 뿌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며, 물 부족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대회 우승 후 물을 뿌려주는 축하 대신 그 물을 아끼고 모아서 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골프 대회가 더 빛이 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	한*수(9830)	저는 기후 환경 변화와 생태계 불균형이 인간의 욕심에서 많은 부분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산 물건을 끝까지 사용하기, 육류 소비 줄이기, 에어컨과 히터 사용 줄이기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분리 배출에 신경 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대신 텀블러, 종이 빨대, 대나무 칫솔 등 제품을 사용합니다. 지배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으로 겸손함을 지니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나인밸류스